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일본 손해보험계, 생보 자회사 사업 강화에 총력

□ 최근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생명보험사업을 맡고 있는 자회사의 영업력 강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.

- 기라메키생명보험(미츠이스미토모해상 자회사): 올해와 내년에 각각 약 30개 지점을 신설하고, 현재 160명에 이르는 생명보험 전문 영업 담당자를 내년까지 250명으로 확충하는 한편, 모기업인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고객이지만 기라메키생명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95%의 고객들에 대해서도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상품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임.
- 히마와리생명보험(손해보험재팬 자회사): 올해에만 24개 지점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, 그동안 손해보험재팬에 위탁하고 있던 영업 및 인력육성 부문을 이번 4월부터 자사로 이관해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.
- 도쿄해상니치도안심생명(도쿄해상 자회사): 2011년까지 인원의 상당수를 방카슈랑스와 같은 기존 손해보험 대리점 이외의 판매망에 집중 배치할 계획임.

□ 내년 4월 경영통합이 예정된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생명보험 자회사의 실적이 업계 주도권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영업력 강화를 포함한 생명보험 자회사 사업 강화책을 전개하고 있음.

- 생명보험회사(46개사)들의 총 신규보험료 수입은 2008년 4~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.5% 하락했지만, 손해보험의 생명보험 자회사들은 손해보험 대리점망을 통한 판매 전략과 단순한 상품 구성,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기라메키생명이 11.3%, 도쿄해상니치도안심생명이 9.9%, 히마와리생명이 3.3% 모두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.
- 그러나 전체 생명보험 보유계약에서 상기 손해보험계 생명보험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4%에 불과하여 정책 실효에 따라 향후 많은 성장이 예상됨.

(FujiSankei Business | 4/14)